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5. 12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미 주

- 美, 텍사스 총기난사 사건에 총기규제 강화 再촉구
  - 5.7 「조 바이든」 美 대통령은 올해 약 200건의 총격 사건으로 1만 4천명 이상의 시민이 사망했다며 美 의회에 '공격용 소총 판매금지, 총기 보관 여건 강화' 등 총기 규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

#### 유럽

- 튀르키예, 테러단체와 연계된 해커 33명 체포
  - 5.8 언론은 튀르키예 경찰이 공공기관 웹사이트 450개에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DHKP-C\* 소속 해커 33명을 체포하였으며, 10,000개 이상의 웹사이트에 무단 액세스를 시도한 42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하였다고 보도
  - \* 인민혁명해방군/전선으로 미국('97.10), 튀르키예('05.1), 영국('01.3.)에서 테러단체로 지정
- 벨기에, 테러음모 혐의로 7명 체포
  - 5.7 언론은 지난 4일 벨기에 경찰이 테러공격을 준비한 혐의로 7명 (체첸인 4, 벨기에인 3)을 체포하였으며, 이들은 ISIS의 열렬한 추종자로서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태를 "절대적으로 우려스럽다"고 표현했다고 보도

#### 아·태평양

- 韓, 'UN 테러리스트 추적팀'에 경찰 파견
  - 5.8 경찰청은 대테러 국제 공조 강화를 위해 헝가리에 위치한 UN 산하 '테러리스트 경로추적팀(UN Office of Counter Terrorism, Countering Terrorist Travel Section)\*'에 한국 경찰관 2명을 최초로 파견한다고 발표
  - \* 테러 위험인물의 해외 이동 차단을 목적으로 설립, EU·미국·일본·인도 등 참여

## ○ 싱가포르, 자금세탁 규제 강화

- 5.9 언론은 싱가포르 정부가 테러 등 불법 자본에 대한 감독 강화와 외국은행과 국내은행의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규제를 위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법안\*을 통과했다고 보도

\* 同법안은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의 인권이 보호된 가운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보 공유를 허용

## 중 동

## ○ 中, 탈레반에 아프간 內 테러 우려 해결 요구

- 5.6 언론은 中·파키스탄·아프간 외무장관들이 3국 회담을 통해 대테러·무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, 특히 中외무장관이 탈레반 측에 아프간 內 다양한 테러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였다고 보도

※ 또한, 중국은 이날 파키스탄 대상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인 ‘中-파키스탄 경제회랑’과 ‘일대일로 계획’에 아프간을 연계하기로 결정

## ○ 이스라엘, 테러자금 악용 가상화폐 계정 189개 압수

- 5.5 언론은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에서 활동 중인 ISIS의 가상화폐 계정 2개와 하마스 연관 기업의 가상화폐 계정 수십개 등 총 189개의 가상화폐 계정을 압류 및 몰수했다고 보도

※ 당국은 압류된 계정 대부분이 팔레스타인 환전소 3곳을 통해 현금화된 것을 확인

## 아프리카

## ○ 나이지리아, 보코하람 피랍 여학생들 귀환

- 5.5 언론은 '14.4월 치복마을 공립 여자중학교에서 보코하람에 의해 납치된 여학생 276명 중 2명이 지난 4월 나이지리아 군인들에 의해 구조되어 보르노주에 있는 가족들과 재회했다고 보도

※ 여학생 중 1명은 1살 아기와 함께 구조, 또 다른 1명은 구조 후 아이 1명 출산

**미국 버팔로市 총기난사 사건**

- '22.5.14 뉴욕주 버팔로 탑스 프렌들리 마켓에서「페이튼 S. 젠드론」(男, 18세)이 총기난사를 자행, 10명이 사망·3명 부상
  - 14:30 同人은 트위터 생중계를 진행하며 중무장한 상태로 흑인 밀집지역인 버팔로市 탑스 슈퍼마켓 주차장에 도착
  - 1차로 주차장 및 마트 입구에 있던 시민들을 조준사격(사망 3명, 부상 1명)하였으며, 대치중이던 슈퍼마켓 경비원도 총격으로 사살
  - 2차로 매장내 직원·이용객들을 조준사격(사망 6명, 부상 1명)한 후,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체포
- '23.2.15 뉴욕주 이리카운티 법원은 同人에게 1급 살인과 국내테러 혐의 등을 적용하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
  - ※ 범인은 흑인과 유대인을 혐오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망자 모두 흑인

**< 백색테러(White terror) >**

- (정의) 정치적 목적을 위한 극우주의자의 테러를 말하며, 좌익에 의한 적색테러(Red Terror) 또는 무슬림 극단주의들의 지하드(Jihadism, 이슬람 성전주의)와 구별
- (기원) 프랑스 혁명중인 1795년 혁명파에 대한 왕당파의 보복이 백색테러의 기원
- (특징) 백색테러 대부분은 '외로운 늑대' 형태의 자생적 테러로, 주로 총기를 사용하여 이슬람사원과 非기독교도를 대상으로 공격하며, 최근에는 극우단체 결성을 통한 조직적 테러 기도가 잇달아 적발
- (주요 백색테러 사건) △'11.7 노르웨이 오슬로·우퇴위아섬 테러(77명 사망), △'17.1 캐나다 퀘벡 이슬람사원 총기테러(6명 사망), △'19.3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사원 총기테러(50명 사망) 등